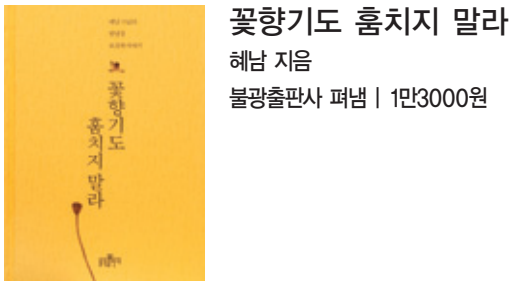


몇번을 받으면서도 잘 모르는 계 이야기



꽃향기도 흠치지 말라
해남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불자라면 누구나 '계(戒)'를 받는다. 재가불자가 받는 계는 삼귀의계 오계 심계 보살계 등이다. 삼귀의계와 오계는 가장 기본적인 계이다. 보살계는 수계하는 불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보살계 범회마다 성황을 이룬다.

이들 불자들은 지난해에 계를 받고도 올해 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를 받으면 좋고, 공덕이 되기 때문이란다.

영축총림 통도사 유주 해남 스님(사진)은 "보살계 범회 가운데 계율과 관계없는 생활 범문이 이어지며 계목도 제대로 읽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스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써 모아 최근 <꽃향기도 흠치지 말라>를 펴냈다. 책은 일생을 유사로 정진해 온 스님이 불자들에게 자신이 받는 보살계(10 중대계 및 48경구계)의 의미와 내용, 이를 어떻게 지키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쉽고 친절하게 담고 있다.

해남 스님은 "계는 주인공 된 삶으로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예류지(四預流支), 즉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과 계의 구조가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부수집 없는 청정한 믿음은 사불괴정(四不壞淨)이다.

해남 스님은 "삼보에 대한 믿음에 더해 계의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불교가 단순히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실천이 바로 계를 받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설명이다.

계율은 계(戒)와 율(律)이 더해진 말이다. 산스크리트 율리(Sila)를 번역한 계는 완전히 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맹세하는 자기 다짐, 즉 자서계(自誓戒)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삼귀의계, 오계, 팔관제계, 심선계 등과 관계없는 자신만의 계를 맹세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다.

반면에 비나야(vinaya)를 번역한 율(律)은 출가수행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으로 타율적인 것이며, 율을 어기면 오편취률(五篇七趣)이라 하여 벌을 받는다. 사미와 사미니는 십계를, 비구스님은 250계를, 비구니스님은 348계를 받아서 지켜야 한다. 타율적이든 강제적인 율인데도 '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된 삶으로 '스스로' 계의 정신으로 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계라고 번역한 것이다.

보살계는 보리심을 일으킨 대승보살이 수지하는 심지계(心地戒)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범망경(梵網經)>에 의거해서 보살계를 받는다. 보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을 말한다. 또한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相求菩提]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下化衆生] 사람을 말한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보살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의 마음은 바로 상구보리 화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보살계 수계식에서도 먼저 "보리심을 발하였는가?"하고 묻고, "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라는 대답을 받은 다음에 수계식을 진행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소승의 율장과 <범망경>에서 말하는 보살계가 어떻게 다른지, 왜 보살계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 누구나 참된 보살의 실천행을 바르게 알고 더욱 열심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동섭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한고추

허수아버가 먼저 눈물을 떨구니

불현듯 옛일이 생각났다. 좌선 할 때 수인(手印)의 문제다. 좌선시에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바닥을 놓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왼손은 아래에 오른손은 위에 놓으면 안되느냐고 한 노스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자상한 내용은 기대할 수 없었고 그냥 오른손 위에 왼손을 놓는다고 하니 궁금증만 더할 뿐이었다.

술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우선 인도와 중국문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인도인들은 오른손을 깨끗하다고 믿고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밥을 먹는 수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면 왼손으로는 화장실에서 휴지 대용으로 쓴다. 오른 손가락 다섯 개로 접시에 놓인 밥을 카레와 섞어 주물러 반죽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여 한 입에 넣기 좋게 만들어 입에 넣는다. 그러니 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연전에 인도 교수대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의 전통 식사법이라면 어쩌나 걱정이 걱정했던 일이 있다. 그건 기우에 그쳤고 식탁에는 포크 나이프가 정연히 놓여 있었다.

왼손의 역할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역발상을 해보면 참 현명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낼 일이다. 현대인은 문명의 이기를 한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다.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밀림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가. 개밭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의 질서는 무참히 파괴되어 재앙을 낳고 있다. 이상 기후변화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한 부호는 환경파괴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하여 3억원이 넘는 벤츠를 굴삭기로 부수기도 하였다.

을 재려고 하면 세상은 온통 불협화음만이 있을 뿐이다.

<대정장> 47 (p.702中)에 명각선사 어록(明覺禪師語錄)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가운데 한고추(閑古錘)가 나온다.

한고추는 노고추(老古錘)라고도 한다. 끝이 닳아서 뭉툭해진 송곳으로 경향이 많은 고참남자를 이르기에도 하고 누구한테나 위압감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자비를 보여주는 노파견절한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일컫는 말이다.

고검의 대화(大火)는 일찍이 밝았건만
劫火曾洞然
허수아버는 먼저 눈물 떨구네
木人淚先落
참으로 가련하구나 저 부대사여
可憐傳大師
곳곳에 머무를 누각조차 없구나
處處失樓閣

옛적 한고추라 불린 덕운비구는
德雲閑古錘
몇 차례나 묘봉정을 내려갔던가
幾下妙峰頂
그를 치성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喚他癡聖人
눈으로 우물 매우기 때문이라네
擔雪共填井

한고추 - 고뇌에 찬 마음이 편안하게 맞을 내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 가 되고 싶다. 한 발짝 내딛기 힘든 육신을 위해 예너지를 뽐뽐 주는 한고추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자진 영혼도 많고 가누기 힘든 육신의 장애인도 많기 때문이다. 지체가 높을수록 위압감에 눌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많은 수행을 했다하여도 무슨 격식을 따지거나 좋아하고 낮은 곳에 손을 내밀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종교는 구원을 떠나서는 존재 의미가 희석될 뿐이다.

사람이 마시는 물도 물고기에게는 주저지가 되고 영가에게는 감로수가 된다. 물이 대상에 따라 각각각색으로 몸을 나뉜다. 한 모습만 고집한다면 이미 물의 속성을 스스로 잃고 말 것이다. 석존은 14무기(無記)에서 외도의 질문을 받는다. '세상은 영원한가, 아니면 무상한가.' 이에 영원하다고도 무상하다고도 답하지 않았다. 이 또한 명안종사의 노파견절한 표본이 아닐까. 세상에선 트레바리만 있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 한고추는 자비의 미소로 우리를 맞을 것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금주의 베스트 북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출판사
3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4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5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경전순길 (한 권으로 읽는 경전)	정운	조계출판사
8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9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10	스님의 현주 가계	스재천	모멘스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여유 한적 소박한 나의 산골생활

농사짓는 산골 시인의 담백한 삶의 이야기

수업 기르기. 제목에서 말하듯 '수업 기르기'는 저자의 삶에 대한 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답수룩하면서도 까칠한 수업을 맡겠 길러 보고 싶은 바람은 타인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살아가는 바람이다.

15년 전, 처음으로 강원도의 산골에 자리 잡은 저자는 책에서 그동안의 삶을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그가 풀어내는 산골생활은 여유롭고, 평화롭고, 순수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자연, 여유, 한적, 소박 등의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골의 이미지를 다소 뼈뺀하게 그려놓았다.

저자가 말하는 산골생활은 전혀 감성적이지 않다. 흔히 도회지에서 상상하는 전원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산골생활은 농사일을 곤란하게 만드는 곤충새 야생짐승 잡초 나무 혹은 이웃들과의 갈등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빠르게 전개되는 현대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삶의 속도를 거스르듯, 아날로그적인 삶은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저자 나름대로 '자연 그 자체로 살기'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그는 삶 속에서 모든 생명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대한다.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도 존재가치가 분명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자연세계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책에 담고 있다.

마치 마구잡이로 기른 수업처럼, 까칠하면서도 또 그대로의 맛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15년 동안의 산골생활을 발가벗긴 듯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지만, 고단하고 팍팍한 시골생활에서도 나름대로의 서글픈 사연들은 풀어내고 있다.

약 60여 편의 다양한 에피소들은 저자가 산골마을에서 겪어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해야하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수업 기르기 | 유승도 지음 | 도서출판 b 펴냄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선어사전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선어 해설!

禪語事典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선문화가 가지는 교감深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선 입문서!

적정寂靜하면서도 활발발한 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자禪者들의 필독서!

선어 940여 개, 등사 및 선어록 80여 개 수록!

해원 판저 | 사륙판 양장 | 512쪽 | 값 2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타났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 · 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